

무동목장 탐방기



송영준
한우개량부

경기 북동부에 위치한 포천시는 옛 고구려시대에 “마홀군”이라 불리우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오늘의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지형적으로 맑은 물과 산이 많은 이곳은 갖가지 특산품과 풍부한 자연관광자원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이다.

이번에 필자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넉넉한 인심이 넘쳐나는 포천시 내촌면에 소재한 무동농장을 방문하여 홍용기(55)사장과 그의 아들 홍석현(28)씨를 만나 한우사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보았다.

한우를 시작하기까지

1970년대초 고등학교졸업 후 착유 20두의 낙농가로서 축산업에 첫발을 들여놓은 홍용기 사장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낙농가로서 안정이 되었으나 평소 한우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1995년에 160평 규모의 축사를 신축하고 암송아지 5두로 한우사육을 시작하였다. 특히 그 당시 그는 번식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각 개체에 대한 혈통등록증과 번



산정호수



광릉수목원



번식우사 전경



비육우사 전경



농장전경



축사주위 과수원

식이력관리대장 및 질병관리대장을 기장하여 이를 번식우 개체관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점차 높은 송아지폐사율 등을 감소시키는 한편 1년 1산을 목표로 농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나 1997년도에 그에게도 IMF라는 큰 위기가 찾아왔다. 치솟는 사료값과 곤두박질치는 송아지값으로 인해 경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지만 그는 한우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고 묵묵히 한우에 대한 열정과 믿음을 가진 결과 현재의 “무동목장”이라는 한우사육농장으로 발전하기 이르렀다.

농장현황

- 총 면적 : 3,000평
- 축사 : 1,200평 (7개동)

- 분뇨처리장 : 200평
- 과수원 및 기타 : 600평
- 사육두수 : 약 280두
(번식우 124두, 거세비육 60두, 육성 및 암·수 송아지 96두)

효율적인 농장관리를 위하여

홍용기 사장은 처음 한우사육을 시작했을 때부터 꼼꼼한 기록관리로 주변사람들에게 정평이 나 있었다. 그런 그이기에 각 개체별 병력기록 및 치료과정, 분만특이사항 등을 일반 병원과 같은 환자병력부를 만들어 농장관리를 해왔으며 각 개체별 인공수정기록야장을 아예 농장관리사문에 크게 붙여놓아 항상 수정(평균1.2회) 및 분만관리(폐



인공수정기록 야장



개체별 병력부



번식기록부



축사내 번식우



조사료 보관창고



송아지를 위한 수송차량

사율1~2%)에 만전을 기한 결과 현재 3~5월까지 집
중적으로 각 개체들이 분만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
을 뿐만 아니라 송아지폐사율도 줄여 농장의 높은
경영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또한 무동농장에서는 5개의 번식우사 뿐만 아니
라 2개동의 비육우사를 마련하여 거세비육우에
대한 생체단층촬영결과와 도체성적자료(1등급출
현율 약80%)를 수집하고 있으며 출하된 개체의
혈통자료와 사양관리내역을 확인하여 모든 개체
의 능력을 자체적으로 검정하고 보완할 점을 숙지
하는 등 우량 번식우선발 등을 통한 한우개량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 생후 4개월 : 어린송아지 사료+생균제 급여+조
사료
- 생후 5개월령 ~ 7개월령 : 중송아지 사료3kg+
조사료(티모시)
- 생후 8개월령 ~ 12개월령 : 큰송아지 사료4kg+
조사료(톨페스큐)
- 생후 12개월령이후 : 번식우 사료4kg+조사료(티
모시, 톨페스큐 혼합)
- 축사내의 음용수 : 정기적으로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무동농장의 밝은 미래

“이제부터 양적인 성장보단 질적인 성장을 하
고 싶다.”라고 말하는 홍용기 사장은 우수한 혈통
의 번식우를 지속적으로 보존 및 발전시키기 위
해 계획교배를 위한 농가교육과 백운한우회 및 조
합원간의 축산정보공유를 통하여 한우사육의 노
하우를 축척시키는 한편 지금까지 해왔던 기장기
록방식에서 탈피하여 모든 농장관리사항을 전산
화하여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농장관리를 시도하
고 있는 중이다. 특히 그 중심엔 그의 영원한 동
업자인 홍석현(장남)씨가 있었다. 홍석현씨는 작
년 대학졸업 후 아버지의 권유로 축산에 발을 들
여놓았지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무동농
장의 관리를 도왔던 그였기에 무동농장의 미래는
더욱 밝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백운한우회 전체농가 중 몇몇
농가들이 모여 비육단지를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
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라고 말한 홍용기 사장은
이제 넓은 우사에 우량 암소를 키울 수 있는 한우
번식농장으로서 다시 무동농장이 태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의 목소리는 무동농장의 힘찬 도약을 말
해주는 것 같았다.